

후보군 물밑 경쟁 점화... 지역 정치권 '총선 모드'

민주 현역 의원들, 다음달 여론조사 앞 당원 집회 등 바다다지기 입지자는 인지도 확보 주력...정의·진보당, 선거제도 개편 노력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점차 '총선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독점 구도인 광주·전남지역은 본선 티켓이 걸린 경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과 입지자들의 물 밑 경쟁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지역 민심에 부합할 만한 당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인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호남의 민주당 독점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민주

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냉랭한 지역 민심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 조직을 총동원,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에는 하위 20%를 사실상 걸러내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권리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 120일 전인 12월10일까지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원 집회, 대의원 대회, 확대 상무·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나서며 바닥 조직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활동과 지역구 예산 확보 등에 대한 흥

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내년 1월10일 이전에 마쳐야 하는 의정보고회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지역 민심이 냉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밑 경쟁'이 결국 호남 정치의 퇴행을 부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당원 조직을 강화하고 민심과의 소통을 확대 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입지자들도 '명함 찬스'를 쓰면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야 명함 사용이 가능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 180일 전인 지난 13일부터 사진과 프로필은 물론 정치적 메시지 등을 담은 다양한 선거용 명함을 배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에 나설 입지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이 급지 않다는 점에서 발품을 팔며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지자들은 새로운

정치적 비전 제시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만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정치적 질서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모 입지자는 "광주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의 중론"이라며 "명함 배포라는 작은 활동에서부터 내년 총선 광주 정치권에 거대한 변화가 올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정현 전 대표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경쟁력을 갖춘 예비 주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에 부합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대도시권 민심이 민주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고 있다. 결국, 여당의 변화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내년

총선 선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특별하지 않다. 여권이 상식에 부합하는 변화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호남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내년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은 내년 총선에 총력을 다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 가려 정치적 활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1%대 지지율은 아픈 지점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등 선거제도 개편에서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 국회가 끝나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경쟁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체제'로 재창당 준비

보궐선거 책임론 현 지도부 유지...다음달 19일 당 대회

정의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이정미 지도부' 체제를 다음달 19일 열린 '재창당' 당 대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가기로 최근 시도당 연석회의 등에서 의견이 모였다"며 "지도부는 11

월 19일 당 대회 때까지 재창당 준비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보선 참패를 두고 지도부 사퇴론이 일었다.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은 1.83%로, 원내 1석인 진보당 후보(1.38%)와 비슷한 수치였다.

당 관계자는 "이정미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구성원의 대체적 의견은 현 지도부로 당 대회를 치르자는 것"이라며 "11월 당 대회 이후 '총선 지도부'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6월 녹색·노동·제3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재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당명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재창당 플랜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병훈 의원, 민주 원내대표 정무특보 선임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에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광주 동남을·사진)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새롭게 합류했고, 원내부대표에 이동주(비례)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로써 민주당 원내대표단에는 지난달 29일 윤영덕(동남갑) 의원이 원내대변인에 임명된 데 이어, 이용빈(광산갑)·윤재갑(해남·완도·진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5명이 포진하게 됐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호남지역구 최고위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의원을 원내대표단에 추가 인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병훈 정무특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생생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정무특보는 광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개선안 마련해야"

소병철 "헌법연구관 충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지난 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



판지연 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 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